

벼랑끝 북미정상회담 정상궤도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26일 전격 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성공 긴밀협력...남북고위급회담·적십자회담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발표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이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남북고위급회담을 6월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안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김 위원장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남북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을 하는 방안 등을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재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6월 12일 싱가포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AFP와 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자국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것(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검토)은 변하지

않았고, 회담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보자"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초 예정인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열 수 있음을 이를 연속 시사한 것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맞물려 6·12 정상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남북정상 뜨거운 포옹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광주·전남 후보 966명
 경쟁률 2.28대 1

지방선거 출마자 5·6·7·8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전남지역 966명의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주말과 휴일 선대위 발대식 등을 갖는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4면>

27일 광주·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25일 이틀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총 966명(광주 227명·전남 739명)이 출사표를 던져 선출정원(423명) 대비 2.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쟁률(2.37대 1)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모두 98명(교육감 포함)을 선출하는 광주에서는 총 227명이 등록했다. 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태, 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등록을 마쳐 4파전을 예고했다. 광주시교육감은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후보가 등록해 3파전이 진행된다.

광주 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14명이 등록,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는 20개 선거구에 47명이 등록을 마쳐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68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118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의원 후보로는 광역 12명, 기초 29명 등 모두 41명이 등록했다.

전남지역은 325명을 뽑는 선거에도 지사 후보 5명, 시장·군수 후보 73명,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15명 등 모두 739명이 등록했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고석규, 오인성, 장석웅 후보가 삼자 대결을 치른다. 22개 시장·군수 선거에는 73명이 등록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2명을 뽑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는 115명이 출마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2개 시·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는 211명 선출에 455명이 등록을 마쳤다. 비례대표는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72명 등 모두 88명에 이른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광주 서구갑에 민주당 송갑석, 평화당 김명진 후보가,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서삼석, 평화당 이윤석 후보가 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1946년 창간
 직업교육에 혈세 줄줄 ▶10면
 도서관, 문화를 품다 ▶18면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